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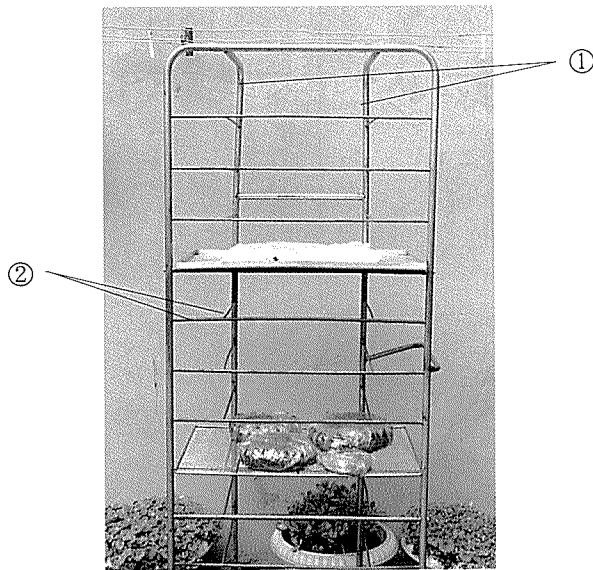
프랑스 기술인들이 사용하는 다용도 랙크(Rack)

제과 선진국은 역시 달랐다. 사용하는 도구·기구는 물론 보관함 하나에까지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들이 넘쳤다. 국내 제과인을 위해 프랑스 기술인들의
현장 경험이 녹아 있는 아이디어를 몇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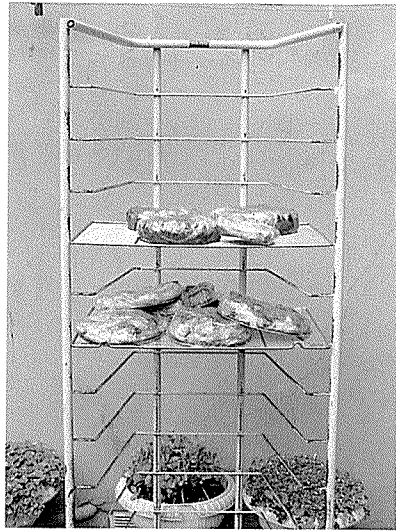
국내의 랙크는 제과인들도 널리 알고 있듯 철판을 넣고 빼는 입구 부분의 구별이 없다. 2곳 어느 방
향에서나 철판을 넣고 뺄 수가 있다. 이런 형태의 랙크는 철판을 넣을 때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반대
편으로 빠져버리는 구조이다. 물론 반대편으로 빠질 정도로 기술인들이 철판을 세게 밀어버리지는 않
는다. 다만 철판을 넣은 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쁜 기술인들이 주의해서 밀어 넣지 않으면, 넣는 쪽이나 반대쪽에 철판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상태의 랙크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흔들림이나 충격에 의해 철판이 더 튀어나오게 되고, 철판이 바
닥에 떨어져 제품을 버릴 수도 있다.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튀어나온 철판의 돌출 부분
은 바빠 움직이는 기술인의 몸과 부딪쳐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고 작업에도 걸림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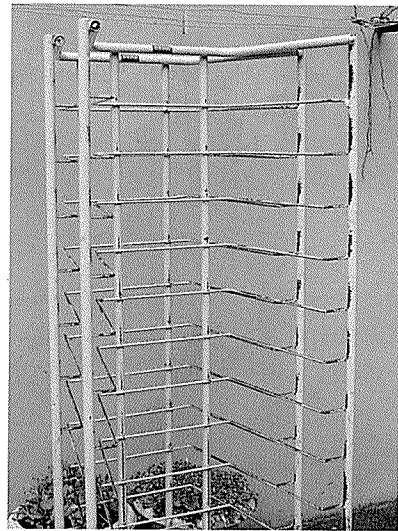


〈사진 1〉

반면 프랑스 기술인들이 사용하는 랙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리는 무척 간단하다. 철판
을 넣고 빼는 입구 부분 2곳 중 한곳의 폭을 좁게 해 파이프를 막아 놓은 것이다. 〈사진 1〉에서 나
타나듯 세로로 길게 막아 놓은 ①의 파이프가 그것이다. 사진의 ② 부분은 철판 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작업자가 ② 위에 철판을 걸친 후 세게 밀어도 철판은 ①에 딱혀 걸리게 되므
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술인은 철판을 넣을 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철판을 쫓은 상태에서 뛰듯이 빨리 랙크를 옮겨도 떨어지거나 한쪽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돌출된 철판이 움직이는 기술인과 부딪쳐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작업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사진 2〉
사용시의 상태



〈사진 3〉
사용 후 여러개를 겹쳐 보관할 때

〈사진 2〉의 랙크도 철판을 넣고 빼는 한곳을 막아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한 원리는 같다. 다만 사각 형태인 〈사진 1〉의 랙크와 달리 사다리꼴 모양을 한 것뿐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랙크나 〈사진 1〉의 랙크는 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겹쳐 놓을 수가 없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하지만 이 랙크는 입구 부분이 넓은 사다리꼴 형태이기 때문에 〈사진 2〉처럼 제품을 보관하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사진 3〉처럼 여러 개를 겹쳐 놓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사진 4〉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랙크

앞에서 소개한 랙크들이 사용 면에서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라면 〈사진 4〉의 랙크는 편리함과 동시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사진에서 나타나듯 이 랙크는 철판을 넣고 빼는 한쪽 부분의 세로 골격 파이프를 없앴다. 그리고 철판을 꽂는 받침대 역할 부분을 긴 막대 형태의 파이프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여러 랙크처럼 철판을 꽂거나 세르크, 실팍 등을 철판에 얹어 보관할 수 있다. 또 사진에서 보듯 철판을 얹는 받침대 부분은 긴 막대 파이프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용하고 난 찹주머니 등을 세척한 후 파이프 부분에 끼워 두면 건조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다용도 랙크이다.

여기에 소개한 랙크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철판을 넣고 빼는 부분 중 한곳을 막아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손상 방지와 작업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 기술인들은 철판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목적(사진 1의 예) 외에도 보관의 용이성(사진 2의 예)과 건조대 역할(사진 4의 예) 등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랙크를 응용해 사용하고 있다. **141**